

소규모대학교에서의 라키비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Larchiveum in a Small University

배 성 중 (Sung-Jung Bae)**

배 삼 열 (Sam-Yeol Bae)***

김 용 (Yong Kim)****

목 차

- | | |
|-----------------|----------------------|
| 1. 서 론 | 3. 대학교 현황 분석 |
|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3.1 현황 조사 |
| 1.2 연구 목적 및 방법 | 3.2 소규모대학교 라키비움의 필요성 |
| 1.3 선행 연구 | 4. 소규모대학교 라키비움 적용 방안 |
| 2. 라키비움 | 4.1 요구사항 |
| 2.1 정의 및 특성 | 4.2 대학교 라키비움 공간 적용방안 |
| 2.2 사례 분석 | 5. 결 론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대학교에서 대학도서관, 대학기록관, 대학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라키비움을 제안하였다. 연구방법으로 라키비움에 대한 문헌조사, 우리나라 대학교의 현황 조사 및 분석하고 각 기관 담당자와의 면담을 수행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도서관, 기록관 및 박물관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통합기관으로써 라키비움은 소규모대학교에 있어서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대학교에서 모든 정보의 관리, 보존 및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 구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대학기록관, 대학도서관, 대학박물관, 라키비움, 소규모대학교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to install and operate a larchiveum for the integrated organization of a library, an archive, and a museum in a small university. To achieve these goals, this study reviewed related literatures and analyzed the circumstances and cases of various universities by conducting interviews with several institutional staffs. With the results,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to integrate a library, an archive, and a museum for an efficient larchiveum. This study also proposes an effective space design to provide management, conservation, and services in a small university.

Keywords: larchiveum, small university, university archives, university library, university museum

* 이 논문은 2014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주교육대학교 기록연구소(bsj@jnue.kr) (제1저자)

***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대학원(b632@naver.com) (공동저자)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문화융복합 아카이빙연구소 연구원(yk9118@jbnu.ac.kr) (교신저자)

■ 접수일: 2014년 10월 24일 ■ 최종심사일: 2014년 11월 9일 ■ 게재확정일: 2014년 11월 19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4), 63-97, 2014. <<http://dx.doi.org/10.14404/JKSARM.2014.14.4.063>>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최근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 장소에서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얻고자 한다. 이것은 이용자의 요구가 점차 복잡해지고 있음을 말하며, 나아가 기관의 형태와 관계없이 종합적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경계가 없어지게 되며, 이를 통합하여 한 장소에서 각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형태인 라키비움이 도입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가장 많이 설치된 기관은 도서관이다. 「도서관법」 34조에서 대학 도서관의 설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는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대학교에서는 법에 명시한 바와 같이 필수적으로 도서관을 설치하여 교수와 학생 및 직원 등에 교육과 관련된 지식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대학 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4조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은 교육 지원 시설로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대학 박물관의 설치의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설립한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운영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대학 기록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법 제13

조 제1항(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운영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공공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립·공립대학이 포함되어 있다. 즉, 현 법에서는 각 지역의 국립·공립 대학교에서는 기록관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실제로 갖춘 국립·공립대학교는 거의 없으며, 또한 「도서관법」이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규정한 '대학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은 국립·공립·사립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공기관인 국립·공립대학만을 기록관을 설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대학은 법에서조차 나타나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록물의 중요성이 높아져 법으로 기록관 설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기록관의 운영에 따른 재정적인 문제 및 기록관에 대한 대학교에서의 인식 부족이 기록관의 설립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1.2 연구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라키비움이라는 개념을 대학교에 도입하여 기존에 설치된 도서관, 박물관과 더불어 기록관의 기능을 융합하여 하나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모든 대학교에서 라키비움을 활용하여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대학교를 소규모대학교로 한정하여 라키비움의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을 모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대학교 현실에서 인력 수급, 예산

부담 경감, 공간의 효율적 활용, 법적 제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라키비움을 통하여 위 기관의 모든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다 큰 규모의 대학교는 도서관 및 박물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은 많지만, 기록관은 거의 없으며, 상대적으로 소규모대학교는 도서관만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훨씬 많다. 결국, 기록관에 투입되는 예산 및 인력 등에 대한 문제로 인해 기록물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설치 및 운영 되는 곳은 거의 없다. 따라서 소규모대학교에서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의 기능을 모두 갖춘 라키비움이 가능하게 된다면 유사한 규모의 공공 및 연구 기관에서도 라키비움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소규모대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통계청, 교육청 및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국 대학교 현황 및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대학교 관련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의를 통합하여 소규모대학교를 구분하며, 이와 관련된 특징을 도출한다. 또한,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의 설립 유무를 확인하여 우리나라 대학교의 현 상황을 확인한다.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된 라키비움 및 협업 관련 논문을 확인하여 라키비움과 협업에 관련된 연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 소규모대학교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관한 라키비움을 직접 방문한다. 시설, 공간 구성 등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살펴보고,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도서, 박물관, 기록물의 생산·관리·보존 형태 및 직원의 업무와 실질적인 프로세스를 파악함으로써 라키비움의 형

태 및 역할에 관한 실무적인 정보를 수집한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와 라키비움의 실무적 환경 및 역량을 비교 및 분석함으로써 소규모대학교 실정에 맞는 라키비움 구성을 가능하게 한다.

1.3 선행 연구

라키비움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기 전에는 도서관·박물관·기록관의 협업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박성진(2008)은 박물관·기록관·도서관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근대 공문서 소장현황, 소장기록물의 특성, 서비스 현황을 검토하여 대부분의 기관이 소장 기록물의 전체 목록을 작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웹서비스도 제한되어 있고, 생산출처가 같은 기록물군이 분산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협업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였다. 박재용, 조윤희(2004)는 도서관과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모형으로서 자율방임형 상호교환 모형, 분산형 상호서비스 모형, 집중형 서비스센터 모형, 혼합형 공동관리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도서관과 박물관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교류가 병행되어야 하며, 각 기관의 조직문화나 자료조직 방법 등의 이해와 협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서혜란(2005)은 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서관과 기록관 간의 협력사례를 유형별로 나누어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우리나라에서 도서관과 기록관의 협력을 모색할 경우에 작용할 수 있는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서관과 기록관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희정 외(2014)는 문화유산기관인 기록관·도서관·박물관을 중심으로 협업을 통한 교육서비스 개발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이를 통하여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더욱 수준 높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중복적인 콘텐츠 개발로 인한 물적·인적 낭비를 줄이는 동시에 풍부한 콘텐츠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교육서비스 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각 기관에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는 자신의 물리적인 조건과 지적인 흥미를 고려하여 보다 만족스러운 교육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Zorich 등(2008)은 대학교의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협업을 위해 각 기관의 관계자 및 전문가의 논의 과정을 통하여 방법론 및 모형을 제시하였다.

Wilson(2006)과 Doucet(2007)은 기관의 합병을 통하여 만들어진 캐나다 도서관 기록관을 통하여 통합 과정 및 이에 따른 운영과 관리 방안 등을 기술하여 새로운 기관 유형으로서의 모습을 기술하였다. 김유승(2012)은 국회 지식정보자원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헌정기념관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협력과 통합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 관련 법령 정비, 협력 영역 및 대상의 확장, 국회 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국회 라키비움 수립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최영실(2012)은 복합문화시설의 최근 기관 사례와 이에 대한 선행 연구를 파악하여 라키비움의 필요성과 기능을 개괄하였고, 기록관과 도서관, 박물관의 공

간 기능을 조사하여 라키비움의 업무와 이용 측면에서의 공간 기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기록관·도서관·박물관의 기능을 수렴한 복합정보기능, 지식정보의 진흥, 지역·사회 내·외를 향한 문화적 이용확장 서비스를 라키비움의 공간 기능 요건으로 설정하였으며, 세 가지 공간 기능 요건에 부응하는 라키비움의 공간 기능 요소를 제안하였다. 최영실과 이해영(2012)은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기능적 특성과 요건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라키비움의 기능요건을 설정하여 공간 기획을 위한 기능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른 절차를 제안하였다. 오정훈과 이용봉(2014)은 라키비움의 도입 절차 및 구축 방법과 관련된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밝히며,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표적 전문도서관 중의 하나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구축한 원자력 라키비움을 대상으로 구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전문도서관에서 라키비움을 도입하고자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라키비움의 도입 방안과 구축 절차를 제시하였다. 최영실(2013)은 국내의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을 대상으로 라키비움 리모델링에 필요한 기관 현황분석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방법적으로는 기존 라키비움 공간 기획 연구의 절차를 정밀화하였고, 분석도구로는 관련 법률과 지침 등을 활용하여 보다 현실적인 라키비움 공간기획의 실행 방안을 제안하였다.

현재까지 라키비움의 도입에 관한 연구는 각 기관이 가진 유사 기능을 통합하는 것과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공통된 공간 도출에 관한 연구로 진행되었다. 각 기관이 가진 기능 및 공간

은 대학교 내에서도 유사함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특정 기관에 적합한 라키비움 연구는 '전문도서관 라키비움 구축에 관한 연구'가 유일하다. 따라서 다양한 주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대학교에서 라키비움을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2. 라키비움

2.1 정의 및 특성

라키비움(Larchiveum)은 2008년 메건 윈젯(Megan Winget)이 처음 제시한 용어로서,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s), 박물관(Museum)의 역할을 하나의 기관을 통하여 다양한 매체의 정보 및 기록물을 수집 및 관리하는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통합형 기관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기능을 집약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영과 운영의 비용 절감 및 이용접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최영실, 2013).

라키비움은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이 공통점을 내포하고 있는 통합 기관으로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각 기관은 인류의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고 활용케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내용이 담긴 물질적인 물체 유산을 보존하며, 이러한 대상이 가진 성질은 다르지만 대부분 기록을 수집, 보존, 활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 수집하는 자원을 정리 및 설명

하는 체계와 보존·전시·열람 시설을 운영하며, 이용자에게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개인정보보호, 접근권 제한 등 윤리적인 책임도 갖고 있다(이상민, 2008). 결국, 수집하는 자원의 속성만 다를 뿐, 수행하는 기능은 유사하기 때문에 라키비움을 구축함으로써 통합된 효율적인 업무 및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현재 라키비움이라는 용어는 해외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으나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협력(Cooperation) 또는 협업(Collaboration)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기술진보, 예산, 연구자 및 이용자의 요구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서비스를 이용자 중심으로 결합시키거나(Rovatti-Leonard, 2014), 각 기관의 디지털 정보의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콘텐츠 및 서비스의 통합구조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Karvonen, 2012), 각 기관 소장 자료의 종합적 관리, 이용자 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한 업무 분담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라키비움은 각 기관의 기능 및 서비스가 하나의 기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력 또는 협업이라는 개념이 발전된 기관의 물리적·기능적·전자적·서비스적 통합(Integration 또는 Consolidation)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전문화가 이루어졌으나 디지털 환경의 도래와 함께, 기관간의 협업의 필요성 및 환경변화에 따라 기관 간의 간극이 좁혀지고, 특정 자료에서의 정보가 아닌 주제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이용자가 나타남으로써(Marcum, 2014) 각 기관이 가진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한 곳에 집약하

여 통일된 기능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가 라키비움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과거 아날로그 자료는 유형별로 관리방법이 달라 각 기관의 고유 기능이 중요했다. 하지만 이제 디지털 혁명의 흐름 속에 지식정보에 대한 상호호환성이 강화되면서 자료 유형 간 정보의 구분과 관리방법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둘째, 디지털 환경의 영향으로 이용자들은 원하는 정보를 자료 유형과 관계없이 한꺼번에 얻고자 한다. 인터넷을 통해 검색했을 때 도서, 기록, 박물관 등의 유형과 관계없이 주제별로 통합적으로 제공되길 원하며, 기관을 방문했을 때 하나의 공간에서 복합적인 정보를 열람, 검색, 전시관람,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한다(임진희, 2012). 셋째, 현재 국내 기록관 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도서관과 박물관의 기능과 콘텐츠의 확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과 맞닿아 훌륭한 대안 모델이 될 수 있다. 넷째, 기존의 문화정보 기관들이 부분적으로 운영해 온 기능들을 하나의 기관에 모음으로서 운영 측면에서는 비용 절감과 이용 측면에서는 편의성 제고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최영실, 이해영, 2012).

라키비움은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수집, 관리, 서비스 기능을 응집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라키비움은 세 가지 특성을 가진다.

첫째, 각 기관의 기능 중 공통 업무의 협업 또는 통합이 나타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각 기관이 가진 수집, 관리, 보존, 서비스라는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집하는 자원의 형태만 다를 뿐이며, 수행하는 업무인 수집, 관리, 보존이라는 업무와

전시, 견학, 이용교육, 강좌, 세미나 등 각 기관이 가진 자원을 바탕으로 수행되는 이용자서비스의 업무가 매우 유사하다. 즉, 자원의 형태를 제외한다면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기본적 업무 특성이 나타나지 않게 되며, 각 기관의 차이는 거의 없게 된다. 결국, 이러한 기능을 각 기관별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가져올 수 있다. 둘째,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하다. 하지만 각 기관은 고유한 조직문화나 기술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같은 개념을 서로 다른 용어로 지칭하거나 이와 반대로 다른 개념이지만 같은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또는 각 기관마다 소장하는 자료를 효과적으로 기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호운용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Melrose(2004)는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진행되는 협업은 복잡한 과정이다. 각 참여자들의 모든 관점을 이해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기관의 구별이 아닌 하나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조직문화와 기술적 요소가 공통적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향후의 모든 업무가 진행되므로 기관 간의 간극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결국, 이러한 협업적 형태는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효율적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으며, 콘텐츠의 효과적 이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서혜란, 2005). 셋째, 각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적 부분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위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정보 매체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공간인 보존 공간, 이

〈표 1〉 도서관·기록관·박물관 비교 및 라키비움의 기능 분석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기록관	보존기록관	
자료	도서, 연속간행물, 전자매체 등	현용·준현용 기록물	비현용 기록물	박물관(문화 관련)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의 수집, 정리, 열람, 검색, 봉사에 관한 기능 - 도서 열람·참고, 보존 - 지식전달·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리과의 기록물 인수 •보존기록관으로의 이관 •기록물의 보존·관리·평가·폐기 •기록정보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록관의 기록물 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유산의 연구, 수집, 분류, 정리, 등록, 보존, 전시, 교육 등에 관한 기능 - 전시, 문화교육 등
수집 방법	구입, 기증, 교환 등	이관, 기증, 수집 등		구입, 기증
정리 방법	도서분류체계	기록관리기준표		등록대장/야장(野帳)
운영 형태	개가제	폐가제		혼용(전시 여부에 따라 다름)
열람 형태	온·오프라인 열람			전시(온·오프라인)
서비스	정보서비스	기록정보서비스		전시 관련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 및 출판 •건축 •이용교육 •강좌 및 세미나 •영상 상영 등 			
공간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보존: 일반열람실, 디지털 열람실, 보존서고 - 참조·정보: 참고정보서비스 데스크, 대출복사서비스데스크 - 교육/지식전달: 멀티미디어실, 교육실(강의실), 세미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관리 및 보존: 입수·등록·정리실, 기술·평가실, 소독·탈산실, 복원실, 스캐닝실, 인코딩실, 마이크로필름 제작실, 수장고(종이류, 디지털류), 비밀 수장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존: 수장고 - 전시: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전시준비실 - 교육: 교육실(강의실), 세미나실
↓				
라키비움 기능	세부 기능		공간 형태	
통합적 정보 서비스	연구, 문서		기록관	
	브라우저, 검색		도서관/유비쿼터스	
	공개 행사, 전시		전시, 박물관	
지적 콘텐츠 촉진	공공 교육, 전문 교육		교육적 공간	
	공동 연구 및 조사		연구 실험실	
	콘텐츠 개발 및 제공		스튜디오, 유비쿼터스	
	UCC			
문화 활용의 확장	지역 정보 보급의 문화적 촉매		커뮤니티 공간	
	사회 문화적 즐거움		극장, 공연무대, 갤러리	
	이용자 편의 시설		식당, 편의점	
	PR 활동 지원		마케팅 관련 공간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보존	집약적 정보 관리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매체별 정보 보존			

Yoo, Dong-Hwan & Choi, A-Reum (2014)에서 참고함

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관리 공간, 이용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것은 각 기관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부분으로서, 각 기관의 설립 목적에 따라 크거나 방식이 약간씩 다를 뿐, 전체적인 맥락으로는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결국, 공통된 공간을 서로 공유하여 기록전문요원, 사서, 큐레이터의 보존 업무를 경감시킴으로써 업무의 과중을 줄일 수 있게 되며, 이용자는 한 장소에서 기록물, 도서, 박물관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일종의 원스탑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며, 새로운 정보를 생산함과 동시에 이것을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은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향후의 또 다른 이용을 하게 되는 유입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2.2 사례 분석

2.2.1 캐나다 도서관 기록관(Library and Archives Canada)

캐나다 도서관 기록관(이하 LAC)은 캐나다 기록 유산의 접근, 획득, 보존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연방 기관으로서, 2004년에 National Archives of Canada와 National Library of Canada를 통합을 위한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를 통해 창설되었다. LAC의 비전과 계획을 통하여 실질적인 국가기관, 교육 및 정부 정보 관리의 선두 주자로서 새로운 유형의 정보기관이 되었다(Doucet, 2007). 이곳은 ① 현재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캐나다의

기록 유산 보존, ② 캐나다의 문화, 사회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지식 접근, ③ 지역 사회 사이의 수집, 보존 및 지식의 확산을 위한 캐나다 공동 작업, ④ 캐나다 정부 기관의 지속적인 기억을 위한 역할을 담당한다. LAC의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은 항상 유산 관리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지적 자유를 옹호하고, 이를 무료로 촉진시키며, 국가의 공동 기록 및 도서 컬렉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계약, 법적 및 제도적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여 그 유산에 대한 책임감 있는 사용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매체별, 부서지기 쉽거나 희귀한 소재, 법률 또는 다른 형태의 자료에 접근하는 것은 원 자료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Loewen, 2008). 또한, 통합적 리더십의 확립, 재정적·인적·물적 자원의 안정적 확보 같은 운영측면의 전략,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기록물과 출판물의 원활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 전략, 그리고 문헌유산의 이용 확대를 위한 서비스 전략 등을 포함하고 있다.

2.2.2 원자력 라키비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전문도서관 최초로 2014년 7월 원자력 라키비움을 개관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보과학동 내 지상 3층, 총 2898㎡ 규모로 구축되었으며(한국원자력연구원, 2014a), 목적은 연구기술정보의 안전한 영구보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록관을 구축하는 것과, 원자력의 역사와 전통, 첨단 기술이 함께 공존하는 차별화된 도서관 문화 공간과 지식 교류의 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

국원자력연구원이 가진 전문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2013년도 4월부터 시작하여 2014년 5월까지 총 2단계를 거쳐 완성되었다. 1단계는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이며, 영구기록물 보관을 위한 기록1관 설치 및 일반 연구기록물 보관을 위한 기록2관, 학술세미나실, 창의연구실을 설치하였다. 2단계는 2014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이며, 정보공유공간(Information commons)을 위한 북카페 조성 및 원자력 50년 역사가 담겨있는 주요 기록물 전시 공간 구성, 도서관 공간의 현대화를 진행하였다(오정훈, 이응봉,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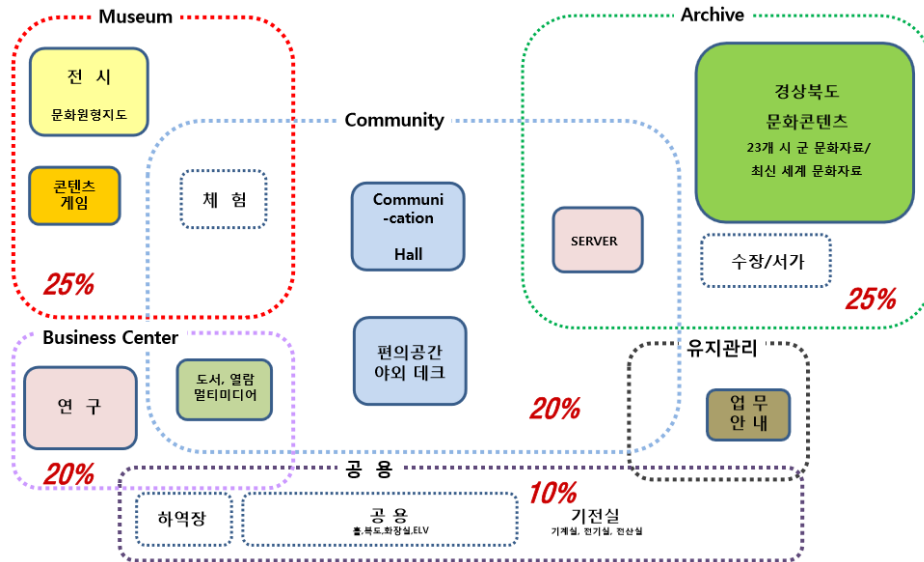
원자력 라키비움은 총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1층은 '기록1관'만이 있으며, 오직 영구보존용 연구기록물만을 보존한다. 시설에는 이동식서가, 항온항습기, 자동소화설비, 공기조화설비 등을 구비하였으며, IAEA Record Keeping Rule을 준수하고 있다(한국원자력연구원, 2014b). 2층은 활용빈도가 높은 준형용 연구기록물을 보관하는 '기록2관', 원자력 관련 물품 및 기록물을 상설 전시하는 박물관이 위치해 있으며, 나머지 공간은 열람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3층은 최첨단 영상/음향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50-60명 수용 가능한 '학술 세미나실', 개인 및 소규모 인원이 창조적 사고를 고취시킬 수 있는 공간인 '창의연구실', 전문사서를 통한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데스크'가 있다. 이외에 수시로 전시를 할 수 있는 전시공간, 신작잡지서가, 휴게공간이 구성되어 있다. 원자력 라키비움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기술정보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기록전문요원은 1명이며, 원자력 기술기록

화 사업 주관 및 기록관리체계 구축을 담당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도서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2.3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라키비움

경북 안동시와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진흥원 내 문화콘텐츠 관련 복합공간인 라키비움 시설구축을 완료하고 2013년 12월에 개관하였다. 진흥원 4층에 위치하며 연면적 390㎡에 문화콘텐츠 관련 복합공간으로서 아날로그·디지털 정보제공, 콘텐츠체험 및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라키비움 공간에는 안내(안동을 비롯한 경북의 문화콘텐츠 전시영상 및 홍보), 도서관(문화관련 도서 및 자료구축, 토론 및 회의 공간), 기록관(문화콘텐츠자료 검색·열람, 3D 영상 체험, 멀티미디어 이용 및 이야기방), 박물관(문화콘텐츠 제품 전시, 게임 체험, 커뮤니티 공간), 초록뜰(옥상 휴게쉼터)로 구성되어 있다(강정근, 2013). 문화콘텐츠의 수립 및 관리에 대한 필요성, 최첨단 디지털 공간에 대한 필요성, 경상북도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필요성의 증가로 인해 경상북도문화콘텐츠 라키비움을 개관하였다. 이를 통해 문화유산·생활양식·창의적 아이디어·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는 지역주민의 복합문화공간으로 경상북도 문화콘텐츠를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 관리하여 문화콘텐츠의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 기반의 최첨단 공간에서 보고, 검색하고, 정보를 즐기며 전통, 문화, 휴식, 소통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안동시청, 2012).

해당 라키비움은 쾌적한 정보커뮤니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총 5개의 공간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이벤트 홍보 공간(20%),



〈그림 1〉 경상북도 문화콘텐츠 진흥원 라키비움 공간구성
출처: 안동시청(2012)

문화 모임 공간(25%), 연구도서공간(20%), 교육 및 열람공간(25%), 지원관리공간(10%)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공간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3. 대학교 현황 분석

3.1 현황 조사

현재 우리나라는 2013년 4월 기준으로 총 397개의 대학교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교의 현황조사를 위해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근거하여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뿐만 아니라, 각 특별법에 의해서 설

립된 각종대학, 사내대학, 기능대학, 전공대학도 포함한다. 대학 규모의 기준은 대학의 재학생 수로 하였으며, A(25000명 이상), B(20000명 이상~25000명 미만), C(15000명 이상~20000명 미만), D(10000명 이상~15000명 미만), E(5000명 이상~10000명 미만), F(5000명 미만)로 구분하였다. 각 기관별 자료는 매년 대학도서관, 대학박물관의 현황을 조사한 학술정보통계시스템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문화시설총람의 정보를 사용하였고, 대학기록관은 국가기록원에서 취합하여 준 자료를 이용하였다.

3.1.1 대학도서관

우리나라 「고등교육법」 제28조에 있는 대학의 목적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지적, 정의적, 정보적 자료를 제공해 주는 학습도서관의 역할, 대학원생 및 교수의 연구를 뒷받침해주는 연구도서관의 역할, 대학 전체와 대학이 소재한 지역사회 전체의 구성원 및 국가발전을 위한 정보제공처, 정보의 소재안내를 위한 레퍼럴센터(referral center)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교육의 동태적 기구이다(손정표, 2001). 따라서 대학도서관은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대학교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대학도서관은 규모가 클수록 소장 자료, 시설 및 설비, 직원, 도서구입비 모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지만 규모가 클수록 대학교의 예산은 많을 것이며, 이에 따라 대학도서관에 투입되는 재원 역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도서관기준(2013)에서는 대학도서관의 장서구성 기준에서 단행본은 기본도서는 학생 1명당 70권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연간 증가책 수는 학생 1명당 3종 이상으로 되어 있다. 또한, 학술지는 서비스 대상자 1명당 1.5종, 서지DB는

학문영역별 또는 주제별 대표적인 서지DB 각 1종 이상씩 구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규모에 따라 도서구입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3.1.2 대학박물관

대학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의 교육기관으로 설립·운영하는 박물관으로 명시되어 있다. 즉, 고고·역사·인류·민속·예술·자연과학·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각종의 자료를 수집·보관·전시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맞는 사업을 행하면서 자료에 관한 조사·연구와 평생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담당하는 공간으로 규정할 수 있다(장경숙, 2009). 박물관의 정의가 제2조에서 교육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았을 때, 대학교는 교육 및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대학박물관은 대학도서관과 마찬가지로 교육의 목적이 주를 이루며, 또한 소장품이 대체로 문화, 역사와 관련되며, 대학의 정체성과 위치한 지역 특색과 환경에 맞는 특성 역시 가지고 있다.

<표 2> 대학도서관 규모별 현황 평균

규모	대학 수(397)	소장 자료	시설 및 설비		정직원 수	도서구입비(원)
			열람석수	도서관 건물 연면적(m ²)		
A	16	2,210,573	6,076	37,809	42	5,225,568,317
B	9	1,482,657	3,859	22,756	29	3,119,936,347
C	16	1,027,182	3,241	18,705	18	1,942,845,906
D	31	728,874	2,055	12,094	11	1,330,641,941
E	82	342,278	1,162	7,314	6	467,808,658
F	243	95,187	386	2,354	2	108,349,064

출처: 학술정보통계시스템(2013)

〈표 3〉 대학박물관 규모별 현황 평균¹⁾

규모	대학수 (82)	소장 자료	총직원 (큐레이터)	평균 시설 면적(m ²)						
				총 면적	전시실	수장고	사회교육실	자료·도서실	사무실	기타
A	14	27,742	8(3)	2,572	1,115	482	117	115	164	368
B	9	49,314	11(3)	3,802	1,293	567	150	92	231	604
C	12	7,354	6(2)	2,982	1,043	294	135	124	154	424
D	15	15,398	5(2)	2,465	928	308	117	86	152	219
E	19	9,918	6(2)	3,093	752	287	426	219	122	2,759
F	13	5,101	4(1)	1,538	920	310	662	233	174	794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3)에서 재편집

〈표 3〉에서 보면 모든 대학교가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전체 397개의 대학교 중 82 곳, 약 1/4 정도만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대학 박물관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시설, 인력 등 투입되는 재원이 많이 필요하고,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경영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큰 규모에 속한 모든 대학교에서도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현재 대학교 규모에 따라 운영하는 대학박물관 수의 차이가 크지 않다. 오히려 규모가 작은 곳일수록 대학박물관을 운영하는 곳이 더 많게 나타났다. 물론, 한 학교에서 두 개, 많은 곳은 4개까지 박물관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각 대학교가 가진 특성 또는 지역적 요건 때문에 운영되는 것일 뿐이다. 대학 박물관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대학교의 교육에 이바지 하는 것이지만, 대학교를 홍보하는 부가적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대학교에서 대학박물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박물관 시설 공간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 박물관 주 업무는 전시

와 관련되어 있음으로 전시실과 수장고 면적의 합은 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외의 공간인 사회교육실, 자료·도서실, 사무실, 기타 공간의 합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대학교에서 넓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자료를 소장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전시실과 수장고의 면적은 커야 하지만 소장 자료가 적음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할 이유가 없음으로 이외의 공간이 크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3.1.3 대학기록관

기록관은 우리나라 공공 기록물 관리법에 의거하여, 공공 기록을 관리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기록관리 기관으로서, 모기관의 기록을 생산 부서로부터 인수하고 일정 기간 보존하며,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나아가 보존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한국기록학회, 2008). 이를 바탕으로 대학기록관은 대학교의 기록을 생산 부서로부터 인수하여 일정 기간 보존하며, 학생 및 교수, 연구원, 일반

1) 대학박물관의 총 개수는 95개이나, 한 대학교가 다수의 박물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1개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다.

〈표 4〉 대학기록관 현황 평균

규모 (23)	담당자 소속		기록관 운영	직원-기록 전문요원	시설 및 설비 면적(m ²)				
	독립	그 외			총면적	서고	이관 및 정리공간	사무실	열람실
A(8)	4	4	3	3.7-0.7(7)	209(6)	144(6)	36(1)	34.7(5)	59(3)
B(3)	1	2	1	1-1(2)	190.5(2)	151(2)	39.5(2)	-	-
C(4)	2	2	2	2.6-0(3)	201.5(3)	131.2(3)	60(1)	90(1)	60(1)
D(3)	3	-	0	1-0(2)	133(1)	109(1)	-	24(1)	-
E(4)	3	1	2	3.3-0.6(3)	213.7(3)	208.7(3)	-	15(1)	-
F(1)	1	-	1	1-1(1)	89(1)	46(1)	17(1)	13(1)	13(1)

출처: 국가기록원(2014)에서 재편집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학의 기록관리 기관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기록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담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갖춘 대학교는 23곳이다. 그 중 9개 대학교만이 기록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전체 대학교의 약 6%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법적으로 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학박물관이 전체 대학교의 약 25%정도 운영되는 것을 볼 때, 대학기록관은 설치율은 매우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대학교 내에서 기록관 및 기록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학기록관을 운영하는 곳은 기록전문요원을 배치했다는 점이다. 물론, 현재 대학기록관의 기록전문요원이 행정업무도 겸직해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관리 업무에 전념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도서관의 전문 인력인 사서, 박물관의 큐레이터가 있듯이 기록관 역시 기록전문요원이 있음으로서 전문기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3.2 소규모대학교 라키비움의 필요성

소규모대학교에 대한 정의를 논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대학교 체제를 보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대학교의 명칭이 종합대학과 단과대학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대학의 설립 이념과 교육 목표 및 방향 등에 의해서 특정주제 학과만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과 이와는 반대로 모든 학과를 개설하여 대학교를 운영하는지의 여부가 기준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대학교의 재정 등과 관련된 영세성이다. 2009년 대학 재정을 조사하였는데, 소규모대학교는 다른 규모의 대학교에 비해 세입의 차이가 10배 이상 나타났다(이정미 외, 2009). 학생 수는 대학교의 재정과 직결됨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학생 수의 차이는 예산의 차이를 가져옴으로써 다른 대학교와 같은 서비스 제공 및 기관의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부의 여러 사업에서는 대규모는 학생 수 1만 명 이상, 중소규모는 1만 명 미만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 수가 5천명 미만인 대학교를 소규모대학교로 규정한다. 이

〈표 5〉 대학교 규모별 각 기관 현황 평균

규모(397)	대학도서관				대학기록관			대학박물관		
	학교 수	정사서	공간(㎡)	도서구입비(원)	학교 수	기록전문요원	공간(㎡)	학교 수	큐레이터	공간(㎡)
대규모(72)	72	25	22,841	2,904,748,127.8	18	2(0.4)	183.5	50	7.5(2.5)	2955.2
중규모(82)	82	6	7,314	467,808,658	4	3.3(0.6)	213.7	19	6(2)	3093
소규모(243)	243	2	2,354	108,349,064	1	1(1)	89	13	4(1)	1538

를 바탕으로 대학도서관, 대학박물관, 대학기록관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5〉에 표현된 것처럼 소규모대학교는 다른 대학교에 비해 모든 면에서 월등히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소규모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대학도서관은 중규모 대학교와 3배, 대규모 대학교와 10배 이상의 인력, 공간, 도서구입비의 차이를 보여준다. 대학기록관과 대학박물관은 모든 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운영하는 대학교 수 차이 자체가 소규모대학교와 다른 대학교와의 차이를 보여주며, 두 기관을 운영하더라도 인력이나 공간은 몇 배 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이는 소규모대학교의 재정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각 기관의 운영 및 투입되는 자원 역시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학기록관과 대학박물관이 재정의 부족으로 인해 운영의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이와 같은 교육 및 연구지원기관이 존재할수록 대학의 역량은 향상된다. 따라서 대학의 규모적 측면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극복하면서 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박물관 및 기록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통합한 라키비움의 운영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인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력의 수급적 측면이다. 인력이 많을수록

기관의 업무를 세분화하여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위 표에서 살펴보면 소규모대학교의 인력은 타 규모의 대학교보다 2배 이상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독립적인 기관의 구축이 아닌 라키비움을 구축함으로써 공통된 업무 및 서비스는 분담하면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의 배치 및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둘째, 예산적 측면이다. 예산은 기본적으로 대학교의 규모와 관련이 깊다. 규모가 클수록 대학교 예산은 비례적으로 증가하며, 이는 각 기관의 운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대학교의 규모가 작을수록 기관의 규모 및 운영이 정해지게 된다. 현재 243개의 소규모 대학교 중 대학박물관을 운영하는 곳은 13곳(약 6%), 대학기록관을 운영하는 곳은 1곳(약 0.5%)으로써, 타 규모의 대학교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²⁾ 이는 대학박물관 또는 대학기록관의 설립으로 모든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 다른 대학교와는 달리 대학박물관의 운영도 어려운 소규모대학교에서 범으로 규정한 대학기록관의 운영을 독립적으로 갖추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대학박물관은 대학교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기관이지만 대학기록관은 범으로써 필수적으로 운영

2) 대규모 대학교는 대학박물관 50곳(약 70%), 대학기록관 18곳(25%)이며, 중규모 대학교는 대학박물관 19곳(약 24%), 대학기록관 4곳(약 5%)이다.

해야 하는 기관이다. 이는 소규모대학교에서 대학기록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 대학도서관을 포함함과 동시에 대학박물관의 기능 역시 구성하고 있는 라키비움을 통하여 실현시킬 수 있다. 셋째, 공간적 측면에 있어서는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관리 및 보존을 위한 공간이다. 대학교는 다양한 기록물과 박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매체의 종류를 살펴보면 도서관은 기록물로 볼 수 있다. 박물관은 특수한 형태를 제외하면 기록물과 비슷한 온도와 습도에서 보존할 수 있다. 결국, 대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매체는 보존을 위한 적절한 시설을 갖춘 한 장소에서 통합하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관점은 서비스를 위한 공간이다. 각 기관의 공통된 기능은 이용자에게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보의 종류나 교육의 내용은 다를 수 있으나, 이를 위한 공간은 필요하다. 라키비움은 각 기관의 중복된 공간을 통합하고, 동시에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넷째, 법적 제도의 준수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은 기록관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즉, 대학교 역시 기록관의 설립 및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위 표에서 나타났듯이, 대학기록관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는 23곳이다. 즉,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법적 명시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소규모대학교는 타 규모의 대학교보다 상대적으로 예산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법

적 요건을 지키기 위해 독립적 기관으로서 대학기록관을 운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록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라키비움을 소규모대학교에 접목시킴으로써 현행법을 준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대학교는 다른 규모의 대학교에 비해 위에서 언급한 인력, 예산, 공간의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각 기관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 물론, 법적으로 기록관의 설립 및 운영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해야 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 환경은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 법을 준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실제 대학교에서 근무 중인 기록전문요원에 따르면 법을 따르기 위해 기록관의 운영은 필요하나 대학교의 현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고, 큰 대학교는 상대적으로 예산 및 인력 등이 많은 상황임으로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할지도 모르나 소규모대학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결국,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대학기록관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각 기관을 통합한 라키비움이 현행법 준수와 더불어 타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대학교의 환경에 맞는 현실적인 대안이라 볼 수 있다.

4. 소규모대학교 라키비움 적용 방안

4.1 요구사항

라키비움은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업무 및 기능을 융화시켜 한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

공하는 기관이다. 이는 세 기관이 가진 특징을 그대로 유지함과 동시에 중복된 부분은 결합함으로써 각 기관이 가진 참조, 상담, 기관 간 대출, 복사 등의 유사한 서비스와 이를 위한 공간 등을 통합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Wilson, 2006). 이러한 점을 대학교에 접목시킨다면 많은 공간과 재원이 불필요하게 되며, 오히려 모든 기관의 자원을 하나로 응축시킴으로써 효율성 제고 및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과 질이 향상될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대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교육과 관련된 정보와 학사일정 또는 연단위로 생산되는 기록물과 박물관이 생산되는 특수한 곳이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수집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이 운영되어야 하지만 국내 대학교에서 이러한 모든 기관을 갖춘 곳은 극히 드물다. 따라서 라키비움을 운영함으로써 대학교의 모든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이 요구된다.

4.1.1 제도 및 정책

소규모대학교의 라키비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에 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을 법률 제 11310호 「도서관법」, 법률 제12248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제11690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담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법령에는 대학도서관, 대학박물관, 대학기

록관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은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으며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을 담고 있다. 특히 각각의 기관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이나 공간적 요구 사항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대학기록관은 다른 법령처럼 구별된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공공기관에 속한다고 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교 설립과 관련된 법인 대통령령 제25213호 「대학설립·운영규정」의 [별표 2]에서는 교육기본시설에 도서관을, 부속시설에는 박물관으로 구분하였고, 기록관은 교사시설 구분에서 아예 빠져 있다. 물론, 부대시설 안에 기록관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도서관, 박물관은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과 비교하여 대학교 내에서 기록관이 가진 위상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대학도서관, 대학박물관, 대학기록관의 업무와 위상을 규정하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학교도서관진흥법」과 같은 독립된 형태의 대학도서관, 대학박물관, 대학기록관의 법령이 만들어지거나 「도서관법 시행령」의 [별표 1]에 명시된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등의 기준처럼 각 기관별 법령에 구체적인 수치를 표시한 시설 및 장비·환경과 관련된 기준이 추가되어야 한다.³⁾

이러한 개정을 바탕으로 라키비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라키비움은 세 기관과 다른 형태의 특수한 기관으로써 대학교 내에서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업무, 기능, 서

3) 「도서관법 시행령」의 [별표 1]에서는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 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의 시설 및 기준만이 있으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6]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특수기록관, 기록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 기준이 있다. 박물관과 관련된 법령에서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비스 등을 개편하여 전문성 확보에 이르기까지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 라키비움은 도서관과 박물관에 비해 기록관에 관한 전문적인 공간 연구가 부족함을 인식하여 현실에 부응하기 위한 복합적 문화공간으로서 등장하였기 때문에 향후에 현재와 다른 상황에서도 라키비움의 본질을 유지하기 위한 유연한 법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4.1.2 운영 및 관리 요소

소규모대학교에서 라키비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예산이 요구된다. 예산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정한 계획이다. 예산의 규모 및 운영에 따라 기관의 기능이 결정된다. 따라서 라키비움의 운영 및 역할 수립을 위해서는 독립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해야 한다. 이는 라키비움을 대학교 내의 다른 연구시설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기관으로서 입지를 가짐과 동시에 외부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한 요건이다. 또한, 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 각 기관에서 제공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예산분배에 신중해야 한다. 특정 기관의 기능에 예산이 집중된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의 서비스나 업무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세 기관의 조직을 개편하여 라키비움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규모대학교는 대부분 대학도서관만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대학박물관과 대학기록관을 갖춘 대학교의 조직구성을 파악하고, 이를 대학도서관의 조직과 연계하여 공통된 업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를 하나로 합하여 통일된 라키비움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부서

가 맡은 업무를 함으로써 라키비움의 운영과 관리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다.

4.1.3 서비스와 공간 구성

소규모대학교의 라키비움은 대학교라는 특성과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모두 집약하여 이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각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양하지만 내용적인 면을 살펴보았을 때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서비스, 대학교 내 각종 연구를 지원해주는 연구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문화적 욕구를 실현시켜줄 수 있는 문화서비스, 기관의 홍보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한 부가가치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서비스는 소규모대학교의 라키비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공간이 구성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공간구성은 서비스가 가장 최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용자의 동선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직원의 업무공간과 이용자의 휴식 등에 필요한 공간 역시 요구된다. 따라서 각 공간에 필요한 크기를 파악하고, 서비스·업무·이용자 공간의 특성을 분석하여 이를 하나의 공간에 배치하였을 때 서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공간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전시실과 전시준비실을 한 공간에 배치시켜 이동시 파손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한으로 만들 수 있고, 자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업무나 서비스를 제외한 다른 자원들은 해당 공간에 비치하여서는 안된다. 따

라서 각 소규모대학교에서는 운영될 라키비움의 공간크기에 맞게 업무와 서비스를 적절히 구성해야 한다.

4.2 대학교 라키비움 공간 적용방안

4.2.1 기능별 공간설계

대학도서관, 대학기록관, 대학박물관의 융합을 위한 소규모대학교 라키비움을 구성하기 위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능별 조직과 서비스를 구분하였다. 각 기관의 조직 및 서비스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소규모대학교 라키비움의 공간 구성 모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표 6〉은 앞에서 살펴본 세 기관의 공간 및 서

비스와 최영실(2012), 김민경과 이성신(2014)의 연구를 바탕으로 소규모대학교 라키비움에 적합한 공간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모형은 층별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한 공간에 있어도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 형태로 구성하였으며, 각 공간별 업무 및 담당자의 배치는 실제 대학도서관, 대학박물관, 대학기록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하였다.⁴⁾ 이 구성은 각 대학교의 상황에 맞게 이를 변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소규모대학교 라키비움은 4개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이는 다양한 업무와 서비스가 존재하지만 소규모대학교의 재정 및 공간여건상 이를 세세하게 분산배치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사한 업무

〈표 6〉 소규모대학교 라키비움 공간 구성

공간 클러스터	설치실	업무 내용	담당자
자료 공간	자료실	대출 및 열람, 정보서비스	사서
열람공간 교육 및 연구지원공간	열람 및 연구지원실	보존도서 열람서비스	사서
		기록물 열람서비스	기록전문요원
		정보서비스 및 연구 지원	협업
	전시실	전시	큐레이터
	전시준비실	전시 관련 준비	
교육실	교육	협업	
사무 공간 정보검색 공간 공용 공간	행정실	사무	-
	도서 정리실	수서 및 등록, 정리	사서
	기록물 정리실	기록물 등록, 정리 및 평가	기록전문요원
	정보검색실	정보 검색, 디지털 매체 열람서비스	협업
	공용 공간	공공서비스	-
보존 및 관리 공간 시스템 유지 공간	보존실	보존실 관리	기록전문요원
	보존처리실	보존 처리	큐레이터
	시스템 유지 공간	시스템 유지	-

4) 2014년 7월~9월까지 진행하였으며,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1차는 각 기관이 가진 기능 및 업무, 공간에 관해 면담을 하였고, 2차는 1차 면담 결과와 라키비움 관련 연구 자료를 통해 만든 소규모대학교 라키비움 공간을 바탕으로 클러스터 구획 및 담당자 배치 및 업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는 업무 간 관련성,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유형 및 수량을 바탕으로 하여 이를 한 공간에 배치함으로써 업무·서비스·공간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자료 공간은 자료실(서고)이 있으며, 사서가 담당한다. 이곳은 기존 대학도서관의 개가식 서고를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서 세 기관 중 가장 많은 매체인 도서를 이곳에 비치한다.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직접 서고에서 열람하도록 하며, 사서는 이용자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료실의 형태는 현 대학도서관에서 주제별로 정리된 서가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각 기관에서 소장한 도서류를 한 장소에 주제별로 배열함으로써 통일성을 갖는다. 더불어 이용자가 자료실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테이블, 의자 등을 설치한다.

다음으로 열람공간, 교육 및 연구지원공간으로써 열람 및 연구지원실은 기록물을 열람하고, 자료실에 있는 도서가 아닌 수장고에 있는 보존도서의 열람 및 연구를 지원하는 곳이다. 이용자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사서와 기록전문요원이 보존실에서 보존도서와 기록물을 제공하는 형식이다. 이는 이용 빈도가 낮은 보존도서와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하는 기록물은 이곳에 비치하는 것보다 보존실에 보관함으로써 공간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연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각종 논문 및 연속간행물 등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는 이곳에 비치함으로써 자료실의 서고와 마찬가지로 이용자가 연구에 필요한 정보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전시실은 대학교의 소장품, 지역의 문화유산 등과 같은 전시적 효과를 확보하면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

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시를 위해 전시준비실을 별도로 구성하여 전시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업무는 주로 큐레이터가 담당하게 된다. 교육실은 라키비움에서 진행하는 각종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견학과 같은 외부 이용자의 방문을 위한 곳으로써 교육 업무는 특정한 영역이 아니라면 협업을 통한 업무가 가능하다. 이 공간은 두 개의 공간으로 분리된다. 하나는 열린 공간으로 열람 및 연구지원실과 전시실이 벽이 없는 하나의 열린 공간으로, 전시준비실과 교육실은 별도의 공간을 가진 닫힌 공간이다. 사서, 기록전문요원, 큐레이터는 열린 공간에 상주하여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사무 공간, 정보검색 공간, 공용 공간을 살펴보면, 우선 행정실은 라키비움의 운영을 위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므로 사무관리, 행사지원,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도서 정리실과 기록물 정리실을 구분하여 설치한다. 정리라는 업무는 같으나 대상이 되는 매체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별된 장소에서 사서와 기록전문요원이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정보검색실은 이용자가 대학교 라키비움이 가진 모든 정보를 검색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매체로 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은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야별 협업을 통하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공용 공간은 이용자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휴게실, 안내실, 편의점 등을 운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존 및 관리 공간, 시스템 유지 공간은 라키비움이 가진 보존 자료를 관리 및 보관하는 공간이다. 보존실의 주요 기능은 가치 있는 자료에 대한 관리 및 보존을 수행하는

공간으로써 해당 업무는 기록전문요원이 담당한다. 이는 기록전문요원 업무의 대부분이 보존 및 관리에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크게 도서보존실, 시청각보존실, 박물관보존실로 구분함으로써 일률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보존처리실은 라키비움이 소장한 각종 자료를 오랜 기간 동안 존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원 및 유지업무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업무는 종이뿐만 아니라 금속품, 목자품 등 다양한 재질의 박물을 관리하는 큐레이터가 담당한다. 보존을 위해 소독실, 탈산실, 복원실, 수리실, 제습실 등 보존에 관련된 작업실이 모두 존재하면 좋다. 하지만 각 대학교의 소장품의 특징 및 종류에 따라 이를 적절히 배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시스템 유지실은 라키비움의 건물 유지뿐만 아니라 각종 DB나 서버와 같은 전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반시설이 갖춰진 곳이다. 이곳에는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전산실 등이 있게 된다.

4.2.2 적용방안

소규모대학교의 라키비움을 위해 앞서 설명한 공간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교 내에서 대학도서관뿐만 아니라 대학기록관, 대학박물관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 소규모대학교 환경에서는 예산의 한계로 인해 교육에 가장 밀접한 기관을 우선시해야 한다. 즉, 대학도서관이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인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학기록관과 대학박물관은 중요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기록관은 대학교 내에서 생산된 모든 기록물, 즉 과거와 현재의 행정기록, 교육·연구기록 등을 관리 및

보존하는 기관으로써 대학교의 역사와 역량을 증명하는 기관이며, 대학교 업무의 중요 성과물로서 생산되는 박물은 이를 전문적으로 소장 및 관리, 보존하는 기관으로서 대학박물관이 있다. 대학도서관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라면, 대학기록관과 대학박물관은 대학교의 전통과 역사를 간직함과 동시에 현 대학교의 모습과 위상을 보여주는 기관이다. 즉, 대학교가 교육을 위한 곳이므로 이와 관련된 기관이 필수적이지만 이와 동시에 대학교의 과거와 현재, 더 나아가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함으로써 대학교의 역사, 전통, 존립 목적, 특성 등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학교 내부적으로 인식의 전환을 통하여 대학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대학기록관, 대학박물관의 기능 및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모습을 대학교 내에서 보임으로써 다음과 같은 라키비움 적용방안이 소규모대학교에 접목될 수 있을 것이다.

1) 예산 확보

소규모대학교에서 기관을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중의 하나는 바로 예산이다. 중규모 및 대규모 대학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예산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학도서관의 운영 역시 상대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관을 설립 및 운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현재 대학도서관 외에 다른 기관을 위한 예산은 거의 책정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도서관, 박물관 및 기록관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라키비움을 운영하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라키비움 역시 중복된 공간 및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각각 운영하는 것보다 재정적으로 적게 비용이 지출될 수 있으나 결국 필요한 예산은 대학도서관 예산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추가적인 예산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재원은 대학교 내·외부에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학교에서 라키비움을 운영하는 곳은 없기 때문에 실제적 방안을 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라키비움이 가진 장점을 바탕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학교내부에서의 방법은 기간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록관리 시범대학으로 선정된 전주교육대학교(이하 전주교대)는 기록관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총 3차에 걸쳐 진행하였다. 1차(2006년), 2차(2007년)는 기록관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3차(2011년)에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및 전자기록물 이관을 진행하였다(전주교육대학교, 2011). 기록관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구비하기 위해 필요한 총 비용을 연 단위로 나누어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구매함으로써 대학교 예산의 부담을 절감시키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소규모대학교에서의 라키비움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보여준다. 한 해에 라키비움과 관련된 비용을 모두 마련하는 것이 아닌 다년간의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의 세부 사항에 맞는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소규모대학교의 예

산에 부담감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된다.

대학교 외부에서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하나는 기부이다. 기부는 자선 사업 또는 공공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대가 없이 물건이나 돈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대학교와의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물질적 기부와 시간적 기부가 있다. 우선, 물질적 기부는 단어 그대로 현금, 부동산, 현물 등을 기부하는 것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원에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는 라키비움을 운영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뉴욕공공도서관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부를 위한 강좌개설이나 다양한 기부이벤트를 만들어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김효숙, 2004). 따라서 이와 같은 형태의 프로그램을 라키비움에서 진행하여 예산뿐만 아니라 이곳에 비치될 다양한 유형의 자료까지 제공받음으로써 라키비움의 운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다음으로 시간적 기부가 있다. 라키비움 내에서 사람들이 노동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인력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이것은 많은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없는 소규모대학교에서 부족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일반 사람들에 의해서 제공받는 자원봉사와 전문가들의 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Pro-bono⁵⁾ 서비스를 활용한다면 안정적인 라키비움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부를 통해 기업은 기업이미지 향상 및 홍보, 사회적 책임이행 등의 기부동기를 가지

5) Pro-bono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무료봉사'라는 뜻으로, 미국 변호사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최근에는 그 의미가 확장되어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자신의 기술, 지식 등의 기부활동이나 사람을 나타내기도 한다.

고 있으며, 기부를 통해 기업이미지 홍보, 미래인재 확보, 기업신뢰도 향상, 지역사회와의 관계유지 등의 효과를 얻으며(노동조, 박경숙, 2013), 개인은 소속감과 함께 기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효과를 가져오는 기부를 소규모대학교에서 유치하기 위해서는 라키비움에 대한 인식을 알릴 수 있는 지속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기부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 다른 방안은 메세나(Mecenat)이다. 이는 라키비움이 박물관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메세나는 문화예술·스포츠 등에 대한 원조 및 사회적·인도적 입장에서 공익사업 등에 지원하는 기업들의 지원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업 측에서는 이윤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기업 윤리를 실천하는 것 외에, 회사의 문화적 이미지까지 높일 수 있어 홍보 전략의 수단으로도 유리하다(전태일, 2005). 이를 소규모대학교 라키비움에 유치시킴으로써 대학교 내부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다양한 사회정보 및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은 기업에서 이루어짐으로 부족한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부 기관과의 교류이다. 소규모대학교는 설립된 지역과의 연계성이 매우 높다. 설립된 지역의 교육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사회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구심적 역할을 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많은 기관과의 연계가 깊다. 국립순천대박물관은 지역 행정기관, 교육기관, 문화기관, 언론기관 등과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를 진

행하여, 교육과 전시 부분 사업을 운영할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지역 내에 있는 다양한 기관이 연합하여 사업을 제안함으로써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강성호, 2013). 이와 같이 지역 내의 많은 기관과의 관계를 통하여 라키비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라키비움은 한 공간에 교육과 문화가 공존하는 문화시설임으로 기관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지역의 발전도도모함과 동시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2) 기능별 공간 설계

라키비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각 기관이 가진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소규모대학교는 대부분 대학도서관만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라키비움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가장 확실한 방안은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라키비움 건물을 건설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규모대학교의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기존 대학도서관의 건물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도서관은 각 층마다 주제별로 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매년 새로운 도서가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모든 도서가 이용되는 것은 아니다. 1975년 미국 피츠버그대학팀의 연구에서 수서 후 7년 후에 이용되는 장서는 51.6%에 불과하며, 나머지 장서는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국내에서도 10년 동안 한 차례도 대출되지 않은 도서의 비율이 도서관 혹은 주제에 따라 28~53%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대학도서관의 장서 중에는 수년간 전혀 이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가를 차지하는 장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선애, 2013). 결국 이용률이 저조한 도서를 보존서고에 배치시킴으로써 라키비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규모대학교는 대학도서관 대출평가를 시행하고, 주제별 도서 위치의 재조정을 통해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보존공간을 라키비움 내부에 둘 것인지 외부에 둘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보존서고가 라키비움 내에 있으면 업무 및 서비스의 효율이 증대되지만 보존될 도서, 기록물, 박물의 양이 많아 여러 곳에 분산 보존하면 오히려 관리의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대학교 내의 도서, 기록물, 박물의 정확한 수량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중앙집중형 또는 분산형으로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키비움 건물 내에 있으면 좋으나, 내부에 존재할 수 없는 경우라도 라키비움과 가까운 곳에 보존실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업무 및 이용의 동선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다른 업무 및 서비스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된다.

3) 고유 업무별 인력 재배치

라키비움은 각 기관에서 수행했던 기능 및 업무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인력 역시 배치되어야 한다. 이는 <표 6>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및 서비스에 맞게 전문 인력이 배정되어야 한다. 자료 공간의 자료실에 사서 1명, 열람공간과 교육 및 연구지원공간의 열람 및 연구지원실에 사서

와 기록전문요원 각각 1명, 전시실 및 전시준비실에 큐레이터 1명, 사무 공간·정보검색 공간·공용 공간의 도서 정리실에 사서 1명, 기록물 정리실에 기록전문요원 1명, 보존 및 관리 공간·시스템 유지 공간의 보존실에 기록전문요원 1명, 보존처리실에 큐레이터 1명이 있어야 한다. 이는 효율적인 업무분담을 위해 각 실별로 모든 인원을 배정한 것으로서, 총 사서 3명, 기록전문요원 3명, 큐레이터 2명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인력을 배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상시로 있지 않아도 되는 보존실과 보존처리실의 인력은 별도로 배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사서 3명, 기록전문요원 2명, 큐레이터 1명으로 라키비움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⁶⁾ 그 외 일반적인 행정업무나 시스템 관리 업무는 기존 기관에서 이를 담당하던 직원을 배치하면 된다.

4) 서비스 제공

소규모대학교의 라키비움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는 대학도서관, 대학기록관, 대학박물관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한다. 각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양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종합하면 <표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정보서비스는 이용자 요구에 맞도록 정보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사서, 기록전문요원, 큐레이터의 공동의 업무활동으로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 대한 '인적협조'와 '질문에 대한 해답'이라고 하는 이용자와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긴밀한 접촉을 전제로

6) 해당 인원은 업무를 기준으로 필요한 정직원 인원을 산출한 것이다. 향후 라키비움 내의 조직과 연계하였을 때에는 이보다 인원이 많게 된다. 이는 정직원뿐만 아니라 계약직 등 다양한 형태의 인력 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표 7〉 소규모대학교 라키비움 서비스

종류	내용	예시
정보서비스	- 이용자 요구에 맞는 정보 제공 - 이용자 중심 - 전문가와의 연계 - 다양한 정보매체 활용 - 원문 제공	이용자 서비스 기획 및 콘텐츠 개발, 대출 및 열람, 복사, 상호대차, 이용자면담, 온라인 서비스 등
교육서비스	- 라키비움에 관한 정보 제공 - 정보 활용 교육 - 다양한 매체 활용	이용자교육, 전자정보활용교육, 이용자 맞춤 워크숍, 지역과 관련된 학술교육 등
연구지원서비스	- 대학교 내의 연구 파악 - 원문 제공	분야별 연구 지원, 논문 작성 교육 등
문화서비스	- 이용자에게 즐거움을 제공 - 대학교 및 지역 정보 제공 - 지역문화와의 연계	전시, 견학, 지역의 유적지 방문 등
부가가치서비스	- 대학교 라키비움 인지도 향상 - 지역 및 기업과의 연계	홍보, 이벤트, 출판, 외부 자본 유치 등
지역연계서비스	- 지역민 교육 - 지역 활동 지원 - 지역 및 기업과의 연계	방과후 프로그램, 교과연계 프로그램, 지역문화 프로그램 등

한다(박준식, 2007; 신이정, 2005; Pugh, 2008). 즉, 이용자와 전문가와의 면대면 관계를 통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때까지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쌍방향적 공유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용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통해 전문가, 즉 사서, 기록전문요원, 큐레이터가 참여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가 행해져야 하며, 라키비움이 가진 다양한 정보매체를 활용하여 적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서비스가 이용자가 찾아옴으로써 시작되는 서비스라고 본다면, 교육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로 볼 수 있다. 라키비움은 생소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용자는 이곳이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모른다. 단순히 대학도서관, 대학박물관, 대학기록관이 한 곳에 있다는 정도로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에게 라키비움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시켜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라키비움은 대학교의 정보 집합소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이용자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연구지원서비스는 각 주제별로 연구 활동에 필요한 학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학생 및 교수, 연구원 등의 연구 수행 시 필요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각종 조사를 통하여 원문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대학교는 교육과 더불어 연구가 한 축을 담당한다. 학과 자체 연구, 정부 지원 연구, 기업 연계 연구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각 연구마다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서비스는 지식정보 제공과 더불어 중요

한 서비스이다. 이는 라키비움을 찾는 이용자에게 편안함과 안락함,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교의 지원뿐만 아니라 설립된 지역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는 대학교는 시민들의 세금 또는 기부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지역 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므로 지역의 요구에 민감하며, 이에 따라 강한 관계가 형성된다(Cohen & Brawer, 2003). 따라서 대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 시나 지역 문화 유적지 탐방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대학교 외부 사람들이 라키비움에 참여할 수 있는 견학이 행해지게 된다.

부가가치서비스는 위에서 설명한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라키비움을 정적인 기관이 아닌 이용자와의 관계를 통한 지속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곳으로 만드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라키비움의 활동 등을 대학교 내·외부로 알릴 수 있도록 출판물을 발행 및 홍보를 하며, 이용자의 관심을 유발시키기 위한 이벤트 역시 진행될 수 있다. 또한, 대학교 내에서 분배한 라키비움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역 및 기업의 자원 유치를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연계서비스는 지역의 교육 또는 지역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이며, 이것은 소규모대학교가 지역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많은 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한다. 이 서비스의 중심은 대학교 외부의 이용자이기 때문에 지역민의 요구와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여 라키비움 내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방과 후 프로그램은 지역 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에게 주제별 강사와 체험활동 등을 제공하며, 교과연계 프로그램은 라키비움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지역역사 프로그램 등을 구성하여 교육청과 연계하여 제공한다. 지역문화 프로그램은 지역의 각종 행사에 공간 및 자료를 지역민에게 제공하며, 이것은 지자체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와 같은 서비스는 자체적 서비스 제공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정보서비스, 연구지원서비스, 교육서비스는 기존 세 기관에서 제공한 서비스이므로 소규모대학교 라키비움 자체적으로 수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화서비스, 부가가치서비스, 지역연계서비스는 대학교 이외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존재해야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소규모대학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지역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과 대학교의 발전이라는 상호 협력적 관계로 존립한다. 따라서 지자체 및 지역 단체·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우호적 관계 향상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소규모대학교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

5) 기관 통합 및 조직구성

각 기관마다 추구하는 가치 및 목표에 따라 조직의 구성이 다르다. 현재 대학교 내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도서관이다. 대학도서관은 대학교의 필수 기관임과 동시에 대학교 내에서 가장 많은 이용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대학교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대학도서관은 학생 및 교수, 연구원, 교직원 등에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직이 세분화되고, 그에 따른

직원 역시 많다. 그러나 대학기록관과 대학박물관은 상대적으로 규모나 인력 면에서 열악하다. 대학기록관과 대학박물관은 두 개 또는 세 개의 부서가 존재하지만 부서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대부분 한두 명에 그치고 있다. 현재 소규모 대학교 역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는 기관은 대학도서관이며, 그 다음으로는 대학박물관이다. 라키비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대학도서관과 대학박물관의 통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통합 추진조직체를 만들어 통합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통합추진단, 통합실무추진단, 통합추진협의회가 구성된다. 통합추진단은 대학도서관과 대학박물관의 통합에 대한 주요 정책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의사결정기구이다. 통합실무추진단에서 작성한 기관통합 관련 안건에 대해 논의 및 최종적 확정을 하며, 이렇게 확정된 사항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타 통합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추진 과정을 점검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통합실무추진단은 두 기관의 통합과 관련된 실무업무 추진을 담당함으로써, 기관통합 관련 과제별 검토 및 대안 마련 후 통합추진단에 안건을 제출하고, 의결된 확정안을 집행하며, 매월 업무 단위별 세부 추진 상황을 작성 후 통합추진단에 이행 상황을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통합추진협의회는 기관 통합과 관련한 두 기관의 쟁점사항에 대해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며, 업무환경 등 직원 요구사항을 협의하게 된다(근로복지공단, 2010). 조직체 구성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서, 기록전문요원, 큐레이터와 라키비움 관련 전문 교

수, 대학교의 현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 행정담당자로 구성할 수 있다. 한편, 대학교에서 기록관이 아닌 레코드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있는지의 여부이다. 레코드센터는 기록의 폐기 또는 보존 기록관으로의 이관 전에 준현용·비현용 기록을 관리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중간 보존 및 관리 창고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기록관과 레코드센터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와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는 레코드센터를 기록물을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곳, 기록관은 역사적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곳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라키비움은 기록관으로서 레코드센터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기능적으로는 전혀 다른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레코드센터와의 조우가 필요하게 된다. 라키비움 내 또는 보존서고에 레코드센터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이를 통합하여 업무 및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 레코드센터의 레코드 코디네이터가 담당하는 기록물 서비스, 이관 및 폐기의 관리·감독 업무를 현 대학교 레코드센터에서의 업무 담당자와 기록전문요원이 분담함으로써 레코드센터의 기능을 유지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레코드센터는 보존을 위한 시설은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가를 통하여 기록물은 기록관으로 이관된다. 따라서 레코드센터에서의 이관 및 폐기와 관련된 업무는 라키비움의 기록전문요원이 담당하며, 이 외의 업무는 기존 담당자가 수행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진 라키비움은 각 기관의 업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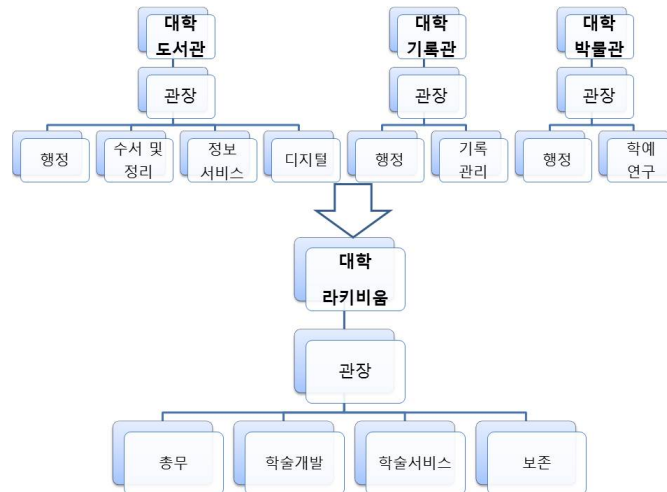
따라 구성된 조직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직으로 <그림 2>와 같이 구성할 수 있게 된다.⁷⁾

소규모대학교 라키비움은 크게 행정, 학술개발, 학술서비스, 보존으로 구성할 수 있다. 우선, 총무는 각 기관마다 기본적으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부서로 조직하였다. 이곳에서는 대학라키비움 전반의 행정인 회계, 인사, 시설 및 시스템관리, 홍보를 담당한다.

학술개발은 대학도서관의 수서 및 정리 등의 업무와 대학기록관의 기록관리 중 기록물 수집 및 등록, 정리, 기술, 평가 등과 관련된 업무를, 대학박물관의 학예연구 중 박물관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행해지게 된다. 해당 부서에서는 정보관리 및 디지털 업무 기능을 수행한다. 정보관리 업무는 대학라키비움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곳으로서 대학교

서관의 물리적 매체의 수서 및 정리와 전자도서, 학술DB, 전자저널, 전자책 구매 등의 업무와 대학기록관과 대학박물관의 모든 기록 및 박물관 관리를 담당한다. 디지털 업무는 디지털 정보와 관련된 업무가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대학라키비움의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웹페이지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따라서 기록물과 박물관의 디지털화 및 관리가 행해진다.

학술서비스는 각 기관에서 수행한 서비스 업무가 이루어진다. 각 기관의 서비스는 정보서비스와 교육·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의 업무 기능 역시 정보서비스와 교육·연구지원 업무 기능을 담당한다. 정보서비스는 이용자의 요구에 맞게 정보와 이용자를 연결해 주는 기능을 맡는다. 따라서 이용자 서비스를 기획하고, 각종 정보의 대출, 열람 및 상



<그림 2> 소규모대학교 라키비움 조직도

7) 이 그림은 소규모대학교의 대학도서관, 대학박물관의 조직을 조사하였고 대학기록관은 규모에 관계없이 운영되고 있는 23개 대학교를 조사하여 하나로 종합하였다.

호대차, 이용자면담, 온라인서비스, 전시, 소장된 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진다. 교육·연구지원은 대학교의 역할이 교육과 연구에 있으므로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여기서 교육지원은 정보서비스팀에서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다르게 이용자에게 직접 무언가를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학라키비움에 대한 이용교육과 전자정보활용교육, 이용자 맞춤 워크숍, 지역과 관련된 학술문화교육 등이 있으며, 연구지원은 각 주제별로 연구 활동에 필요한 학술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보존은 각 기관에서 하는 보존업무를 통합하여 담당한다. 대학도서관의 보존서고, 대학기록관과 대학박물관의 보존처리실 및 수장고가 존재하므로 이를 위한 업무가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5. 결 론

우리나라는 고등교육법에 의거하여 대학교를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학교는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임과 동시에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따라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부속 기관이 필요하다. 현재 대학설립 규정에 따라 설립·운영해야 하는 대학도서관을 통해 모든 대학교에서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생산된 기록이나 박물은 대학기록관과 대학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

러나 세 기관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는 많지 않으며, 소규모대학교일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 심하게 나타난다. 특히, 대학기록관은 법으로써 필수적으로 설치 및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시행하는 곳은 극히 드물다. 따라서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기능을 모두 갖춘 라키비움을 소규모대학교에 접목시킴으로써 대학교에서 생산 및 수집되는 도서, 기록, 박물관 등과 같은 다양한 매체를 효과적으로 관리 및 보존시킬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소규모대학교는 대학도서관을 모든 곳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 외 기관은 거의 운영되고 있지 않다. 특히, 대학기록관은 1곳에 불과하므로 법적 규제를 충족시키며,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보존 및 서비스를 위해서는 라키비움을 적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현재 대학도서관, 대학기록관, 대학박물관의 현황을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소규모대학교에 라키비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및 관리, 서비스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였고, 이를 적용하기 위해 예산 확보 방안, 기능별 공간 확보방안, 고유 업무별 인력 배정 방안, 서비스 제공 방안, 기관의 통합 및 조직구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소규모대학교에 라키비움을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공공기관은 기록관의 설립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으나 소규모대학교는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 이를 라키비움을 통해 기록관의 업무 및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된다. 둘째, 대학교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의 통합적 관리, 보존 및 서비스가 가능하다. 대학교는 교육과 연구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생산되는 정보의 매체는 다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정보 매체를 포용할 수 있는 라키비움을 통해 효과적인 관리 및 보존이 가능하며, 이를 통한 각 기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게 된다. 셋째, 소규모대학교의 예산 및 공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소규모대학교는 예산 및 공간의 한계로 인해 각 기관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없다. 그러나 적용된 라키비움을 통하여 중복된 서비스의 통

합을 통한 효율적인 공간의 구성이 가능하며, 한 기관에서 각 기관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각 기관을 운영하는 것보다 예산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소규모대학교에서 세 기관의 운영이 어려운 현실을 라키비움의 적용을 통해 극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소규모 대학교에 국한된 것으로서, 다른 규모의 대학교 또는 공공기관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실제 구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실제 적용 및 검증, 평가 방안에 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성호 (2013). 대학박물관과 지자체 교류: 국립순천대박물관 사례를 중심으로. *고문화*, 82, 157-175.
- 강정근 (2014).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라키비움' 오늘 개소. *신아일보*. 검색일자: 2014. 9. 12.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8925>
- 국가기록원 (2014). 대학기록관 현황. 성남: 국가기록원.
- 근로복지공단 (2010). 근로복지공단 - 한국산재의료원 통합백서. 울산: 근로복지공단.
- 김민경, 이성신 (2014).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공간 협력 방안.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7(1), 1-24.
- 김선애 (2013). 대학도서관의 자료 이용에 관한 연구: A대학도서관 이용자의 대출통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4), 115-131.
- 김유승 (2012). 국회 라키비움의 전망에 관한 연구: 기억기관 협력 정책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 기록관리학회지*, 12(2), 93-115.
- 김효숙 (2004). 뉴욕공공도서관의 재정확보에 관한 연구. 제11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33-140.
- 노동조, 박경숙 (2013). 기부금을 활용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1), 171-187.
- 문화체육관광부 (2013).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박성진 (2008). 근대 공문서 소장 현황과 협력 과제: 박물관·기록관·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2), 75-88.
- 박재용, 조윤희 (2004). 도서관/박물관 협력체제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2), 315-333.
- 박준식 (2007). 정보서비스론.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 서원주 (2012). 박물관·미술관 활성화를 위한 영국 MLA의 역할. 박물관학보, 22, 121-128.
- 서혜란 (2005). 기록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도서관과 기록관의 협력.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6(2), 25-41.
- 손정표 (2001). 대학도서관 장서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2(3), 275-305.
- 신이정 (2005). 대학도서관의 디지털 정보봉사에 관한 현황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 안동시청 (2012). 경상북도 문화콘텐츠 진흥원 라키비움 공간구축 실시설계. 안동: 안동시청.
- 오정훈, 이응봉 (2014). 전문도서관 라키비움 구축에 관한 연구: 원자력 라키비움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5(2), 229-246.
- 이정미, 유현숙, 이선호, 나민주, 김민희, 도민영 (2009). 대학재정 실태와 성과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임진희 (2012). 국회의 통합 라키비움을 기대하며. 국회도서관, 49(8), 18-21.
- 장경숙 (2009). 전국대학박물관 현황 분석과 발전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 전주교육대학교 (2011). 『2011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시범보급』에 따른 “RMS운영환경 구축 및 전자 기록물 이관” 사업 추진현황 자료 제출. 전주: 전주교육대학교.
- 전태일 (2005). 박물관의 재정증대 방안 연구: 기부 및 메세나 활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미술관·박물관학전공.
- 최영실 (2012).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복합 기능을 구현한 라키비움의 공간 기능에 관한 연구. 문화산업연구, 12(2), 53-80.
- 최영실 (2013). 라키비움 공간기획을 위한 리모델링 대상 기관의 현황 분석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0(2), 143-167.
- 최영실, 이해영 (2012).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기능을 융합한 라키비움의 기능 계획.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4), 457-477.
- 최재희 (2008). 국가차원의 문화유산기관 협력체 구성사례 및 시사점: 영국 MLA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2), 61-74.
-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용어사전. 서울: 역사비평사.

- 한국도서관협회 (2013). (2013년판) 한국도서관기준 (3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원자력연구원 (2014a). 원자력 연구 역사와 원리를 '한눈에 쏙' 보도자료.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 한국원자력연구원 (2014b). 원자력 라키비움.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 한희정, 육혜인, 오유진, 김용 (2014). 문화유산기관의 협업을 통한 교육서비스 개발에 관한 연구: 기록관 · 도서관 ·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2), 31-60.
- Cohen, Arthur M. & Brawer, Florence B. (2003). The american community college. San Francisco: Jossey-Bass.
- Doucet, Michelle (2007). Library and archives canada: A case study of a national library, archives, and museum merger. RBM: A Journal of Rare Books, Manuscripts, and Cultural Heritage, 8(1), 61-66.
- European Group on Museum Statistics (2004). A guide to european museum statistics. Berlin: European Group on Museum Statistics.
- Gupta, Dinesh K., Koontz, Christie, Massisim, Angels, & Group, Gale (2006). Marketing in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München: K.G.Saur.
- Karvonen, Minna (2012). Digitizing materials of libraries, museums and archives. Scandinavian Public Library Quarterly, 45(2).
- Loewen, Candace (2008). Transformation, exploration, innovation: Library and archives canada's access policy framework. Archives and Manuscripts, 36(2), 146-168.
- Marcum, Deanna (2014). Archives, libraries, museums: Coming back together?. Information & Culture, 49(1), 74-89.
- Melrose, Elizabeth Anne (2004). The north yorkshire unnetie digitisation project: From an idea to an opportunity. New Library World, 105, 196-202.
- Pugh, Mary Jo (2008). Providing reference services for archives and manuscripts.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Rovatti-Leonard, Angela (2014). The mobile lam (library, archive & museum): New space for engagement. Young Adult Library Services, 12(2), 16-18.
- Wilson, Ian E. (2006). Library and archives canada: Unique institution. Alexandria, 18(3), 135-142.
- Yoo, Dong-Hwan & Choi, A-Reum (2014). Larchiveum-based digital heritage museum.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Letters, 52, 102-107.
- Zorich, Diane M., Waibel, Günter, & Erway, Ricky (2008). Beyond the silos of the lams: Collaboration among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Dublin, Ohio: OCLC Research.

[법령]

- 『고등교육법(법률 제12174호)』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5375호)』
- 『대학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 제25213호)』
- 『도서관법(법률 제11310호)』
- 『도서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751호)』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법률 제12248호)』
- 『작은도서관 진흥법(법률 제11316호)』
- 『학교도서관진흥법(법률 제11690호)』

[웹사이트]

학술정보통계시스템 (2012). 대학도서관통계. 검색일자: 2014. 8. 29.

http://www.rinfo.kr/stat/statView.do?sub=01&SURVEY_YEAR=2012&OWASP_CSRFTOKEN=54TI-CND9-7WER-MBM8-4LRB-KHUA-D5JF-4Z7I

Library and Archives Canada (2004). Our mandate. Retrieved October 1, 2014, from

<http://www.bac-lac.gc.ca/eng/about-us/Pages/our-mandate.aspx>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13). University Archives and Records Center. Retrieved November

27, 2014, from <http://www.archives.upenn.edu/index.html>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 (2013). University archives and records center. Retrieved

November 27, 2014, from <http://library.wvu.edu/archives>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Andong City Hall (2012). Gyeongsangbukdo culture & content agency larchiveum building space design. Andong: Andong city Hall.

Chang, Kyung-Sook (2009). A study on the real condition of korean university museums and how to improve the situ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Choi, Jae-Hee (2008). A case study on the MLA as an example for the national-level cooperation between cultural institution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8(2), 61-74.

- Choi, Young-Sil (2012). A study on the spatial function in larchiveum based on the multi-function of archives, library and museum. *Cultural Industry Research*, 12(2), 53-80.
- Choi, Young-Sil (2013). A study on analysis of remodeling target institution for larchiveum spatial plann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2), 143-167.
- Choi, Young-Sil & Rieh, Hae-Young (2012). Functional planning of larchiveum that integrates the functions of archives, libraries and museum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4), 457-477.
- Gang, Jeong-Geun (2014). Today places kyungpook culture & content agency 'larchiveum'. *Shinailbo*. Retrieved September 12, 2014, from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8925>
- Han, Hee-Jung, Yuk, Hye-In, Oh, Yu-Jin, & Kim, Yong (2014).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services to collaborate between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4(2), 31-60.
- Jeon, Tae-Il (2005). A study about increasing the revenue of museums through donations and mecena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11). According to the 『2011 Standard Records Management System pilot deployment』, submission on "RMS operations environment and electronic records transferred" project status. Jeonju: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Kang, Sung-Ho (2013). Interchange between university museum and the local bodies: A case study on sunchon national university museum. *Ancient Culture*, 82, 157-175.
- Kim, Hyo-Suk (2004). A study of securing financial support for new york public library. *Proceedings the 11th conference of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133-140.
- Kim, Min-Kyung & Lee, Seong-Sin (2014). The collaborative workplace among archives, libraries, and museums. *Social Science Discourse and Policy*, 7(1), 1-24.
- Kim, Sum-Ae (2013). A study on the collection use of an academic library: Focused on the analysis of circulation statistics of the a-academic library user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4), 115-131.
- Kim, You-Seung (2012). A study on perspectives of the national assembly larchiveum: Focused on discussion about collaborative strategies of memory institution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2(2), 93-115.
-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2010). *Korea workers' compensation &*

- welfare service - Korea workers accident medical corporation integration whitepaper. Ulsan: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 Korean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2014a). 'Comfortably at a glance' the history and principles of nuclear research press release. Daejeon: Korean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 Korean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2014b). Atomic energy larchiveum. Daejeon: Korean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3). Standards for korean libraries (3rd ed.).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2008). Dictionary of records and archival terminology. Seoul: Yuksabipyeongsa.
- Lee, Jeong-Mi, Yoo, Hyeon-Sook, Lee, Sun-Ho, Na, Min-Ju, Kim, Min-Hee, & Do, Min-Young (2009). College financial situation and performance analysis.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3). National cultural infrastructure overview. Sejong: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National Archives (2014). Status of university archives. Seongnam: National Archives.
- Noh, Dong-Jo & Park, Kyung-Sook (2013). A study on the vitalization methods of small libraries using donation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1), 171-187.
- Oh, Jeong-Hoon & Lee, Eung-Bong (2014).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larchiveum of specialized library: Focused on atomic larchiveum. *Social Science Research*, 25(2), 229-246.
- Park, Jae-Yong & Cho, Yoon-Hee (2004). A study on model development of cooperation system for library & museu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8(2), 315-333.
- Park, Jun-Sik (2007). Information service. Daegu: Keimyung University Press.
- Park, Sung-Jin (2008). Collection status of modern public records and cooperation issue: In the museum, archives, and librari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8(2), 75-88.
- Seo, Won-Joo (2012). The role of the british mla for activation of the museum and art gallery. *Journal of Museum Studies*, 22, 121-128.
- Shin, Yi-Jung (2005). A comparative study on the digital information services provided by university librar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Sohn, Jung-Pyo (2001).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collection size of university librari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2(3), 275-305.
- Suh, Hye-Ran (2005). Collaboration between libraries and archives for the preservation and use of documentary heritag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6(2), 25-41.
- Yim, Jin-Hee (2012). To expect Integrated larchiveum of the national assembly. *National Assembly Library*, 49(8), 18-21.